

지역 특산물 잘~ 나갑니다

신안 조미김 매출 357%·여수 멸치 216% 급증

유통업체, 매장 늘리고 마케팅 지원하며 '원인'

지역 특산물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유통업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지역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이마트 5개점(광산·광주·동광주·봉선·상무)이 지난달 24일부터 11일까지 지역 특산물 판매실적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신안 조미김(357%), 여수 멸치(216%), 신안·목포 병어(202%), 완도 전복(160%)의 매출 증가율이 급증했으며 장흥·진도 매생이 72%, 신안 비금삼초 52%, 나주 배 46%, 해남 옥천 쌀 20% 등 매출액이 증가했다.

지역 특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이마트는 광주·전남지역산 특산물 매입 물량 비율을 매년 늘리고 있다.

특히 신안 비금삼초는 신안 비금도에서 나오는 시금치로 12~2월까지 3

개월만 판매되는데 전국 겨울 대형마트 시금치 매출 중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산지 직매입 상품이 늘면서 과일을 비롯해 채소류까지 신선식품에서 지역 특산 프리미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웰빙 열풍에 힘입어 지역 특산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설 선물세트도 잘 팔렸다. 지역 백화점들은 명절 선물세트의 80% 이상을 지역 특산물 비중을 20% 더 늘렸다.

(주)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태풍으로 과일 값이 급등했지만 장성 사과와 나주 배

로 구성된 혼합 청과세트가 7% 가량 늘었으며, 장흥산 한우가 잘팔리면서 한우 선물세트 매출도 3% 가량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나주 녹색한우, 영광 병성포 굴비, 완도 김세트, 고흥 유자차 등 전남 대표 특산물 200여종을 선보인 결과 선물세트 매출이 8% 가량 늘었다.

또 장성사과, 담양한과, 장흥 표고 등 매출이 10~15% 가량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 식품관에서 지역 특산물 취급 물량을 늘리면서 최근 3년간 매출이 8~10% 가량 증가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매입량을 늘리는 것이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차별화된 상품전략으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상호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며 "지역 특산물도 재배농법이나 관리체계가 갖춰져 선물 등 차별화는 물론 경쟁력을 갖추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달콤한 곰돌이와 밸런타인데이를”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초콜릿으로 만든 약 2m 크기의 대형 곰돌이 인형을 선보여 연인들의 추억 만들기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4월 중단

카드 돌려막기 규제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

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에 호응이 높았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내달부터는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빌딩 결제도 제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NH농협 中企에 15조 신규 대출

NH농협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에 15조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은행 ▲바로 뛰고 현장에 중심을 뒀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은행 ▲중소기업 금융 역량이 있는 은행 등 3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핵심전략을 실천하고자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보증료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는 '해피투게더'를 출시하고 기존에 판매하던 중소기업

동반성장론과 이노·메인비즈 대출, 지난해부터 시행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업을 위한 지자체 협약대출 등 저리 자금 공급, 우수 산업단지 담보인정비율 확대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 권역별로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경영상황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밀착경영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중기 지원 테스크팀(TFT)과 중소기업지원단도 신설·운영한다. /연합뉴스

졸업·입학 앞둔 이통사 '사전 경고'

방통위, 보조금 경쟁 단속

방송통신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불법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서비스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통통신사에 사전 경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졸업·입학 선물용 휴대전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과잉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전 경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날이 춥고 문을 닫은 대리점·판매점이 많아 이통사 경쟁이 전보다 조금 누그러

들었지만, 연휴 이후가 문제"라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지난 8일의 번호이동 수치는 약 3만건으로 지난 1일(약 3만3000건)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방통위의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4000건을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는 배송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매장은 잠잠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금이 크게 오른 것이 특징"이라며 "인기機種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가 전략 단말기로 활용된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사례도 있었다.

양사는 '월 10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리베이트를 환수하겠다'는 압박 정책까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장지 중인 SK텔레콤도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는 배송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매장은 잠잠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보조금이 크게 오른 것이 특징"이라며 "인기機種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가 전략 단말기로 활용된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진의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X파일

매주 금 밤 11시

박종진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 | | | |
|--------------------------------------|-----------------------------|--------------------------|------------------|
|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 스카이라이프 13 |
|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 IPTV 18 |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20대 남자 선물비용 여자의 1.5배

20대 남자가 선물비용으로 지출하는 평균금액이 또래 여자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20대 고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평균 선물비용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1회 평균 8만5000원, 여자는 5만7000원으로 남자가 약 2만8000원을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측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자의 선물 지출 비용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5만~10만원(44.5%)이

가장 많았고 ▲3만~5만원(36.5%) ▲10만~20만원(14.2%) ▲20만원 이상(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물로 남자는 '향수', 여자는 '화장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동일 집화팀장은 "행사가 집중된 2월은 젊은이들의 지출이 많은 시기"라며 "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면 더욱 합리적인 소비로 기분 좋은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딱 단힌 지갑

소득대비 소비지출 60% 밑 첫 추락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다. 지갑을 닫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구분은 없었다.

문제는 소비가 저축과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엔저 등으로 수출까지 타격을 받아 경제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을 보일 경우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작년 3분기 평균 소득 414만1859원 중 식료품 등 소비지출은 246만7121원으로 59.6%에 그쳤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최근 10년 동

안에는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에 소비지출 비율은 61.2%에 그쳤다. 이후 조급식 회복해 2010년 4분기 63.8%까지 올라갔으나 작년 들어 1분기 62.3%, 2분기 60.5%로 하락해더니 급기야 3분기에 60% 밑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댔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은 작년 2~3분기 연속 100%를 밑돌았다. 그 동안 1분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작년 1분기만 해도 107.5%였으나 2분기에 97.1%로 떨어지는데 이어 3분기 9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명절 후엔 즉석식품 인기

설 등 명절 이후에는 간편 대용식이나 정리용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롯데마트가 작년 설 명절 이후 일주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기면 매출은 명절 이전에 비해 68.7% 증가하고 봉지면 매출도 4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석우동은 43.1%, 즉석탕면 등도 6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마트 측은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고객들이 연휴가 끝나면 딱딱하고 얼린 국물을 즐겼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례상 준비에 주부들이 힘을 많이 쓴 이후여서 간편식을 찾는 일도 잦아진다고 롯데마트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세탁·정리용품의 수요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납용품의 경우에는 설 명절 후 39.5% 매출이 뛰었고 보관용품은 21.5% 신장했다. 액체세제 역시 54.2% 판매가 늘어났다. /연합뉴스